

간호대학생의 보건의료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신승옥*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The Need for Education on Health and Medical Law for Nursing Students

Seung ok Shin*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4주기 간호인증평가의 범주인 법과 윤리에 속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관련 범주에 속한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주기에서는 4가지의 하위역량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학습성과는 법과 윤리에 따른 간호를 수행한다” 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대학마다 간호학과의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설정을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법규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중요 과목으로서 최근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과락자수가 1순위-2순위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이 암기위주의 국가시험으로만 인식된다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간호사로서의 수준높은 간호를 요구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높아지고 있어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중요성의 인식하여 학습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program belonging to law and ethics, which is the category of the 4th cycle nursing certification evaluation, an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belonging to the related category accordingly. In the 4th cycle, 4 sub-competences were presented, and “learning outcomes are to practice nursing in accordance with law and ethics”. Planning is recommended. In particular, 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ar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failed in the recent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es was 1st to 2nd. However, if these subjects are recognized only as memorization-oriented national tests,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cannot be achieved. In particular, with the demand for high-level nursing care as a nurse and the expansion of work, related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re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chieving learning outcomes for 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and to make efforts to link learning outcomes.

Key Words Health and Medical Law, Learning Performance, Nursing Students, Nurses,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Assessment

1. 서론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에서는 간호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 간호교육인증평가 영역에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대학의 목표와 간호학과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위해 표준화된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관계법규 교과목은 졸업 학년에 수강하는

*Corresponding Author : Seung ok Shin(Gwangju Health Univ.)

E-mail: rnokkk@daum.net

Received Sep 16, 2022

Revised Nov 05, 2022

Accepted Nov 18, 2022

교과목으로 학습성과인 법과 윤리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법적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간호실무 표준을 준수하는 등의 간호 평가를 하고 있다[2].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하면 2019년 14,57건으로 2012년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3], 형법 제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300건으로 2010년 827건에 비해 0.6배정도 증가하였다[4-5]. 소비자로서 의료서비스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의료분쟁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6]. 의료법 제정이후 64년 만에 개정된 2015년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를 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간호업무 확대하고 범위를 구체화하였다[7]. 간호업무의 전문성 확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장시키며 그에 따른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수준 높은 의무와 책임이 넓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간호사의 주의의무 등의 소홀로 인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환자에게 사상을 가져온다면 직접적으로 간호사에게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간호업무 범위의 확대는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8]. 간호사는 보건의료인력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이며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의료법의 개정과 함께 점점 복잡화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인해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9].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의료사고가 발생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10].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안에 구성되어야 한다. 과거의 보건의료법규 교육이 단순히 국가고시 과목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호행위에 직업적 윤리와 직업적 소명 의식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11]. 보건의료관계법규가 간호사 국가시험의 중요과목으로서 교과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당위성은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법교육만이 이루어진다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교육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범주와 역량

인증평가는 고등교육에 있어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영역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12]. 간호학과와 인증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작한 인증평가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위탁 받아 평가하게 되었고,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13].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은 질 높은 간호인력의 양성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3-14]. Kim 연구는 인증평가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인증평가 이후 간호교육에 대한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12]. 2012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의 운영을 살펴보고 수준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는 간호사의 핵심역량과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학과의 간호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있다. 핵심역량이란 졸업시에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핵심역량은 다양한 환경에서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식 등 교육을 통해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15-18]. 이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핵심역량은 학습성과와 연관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19]. 학습성과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대학의 목표와 부합되면서 간호학과의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20].

Kim의 연구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후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체계 구축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한 간호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21]. 특히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범주영역에 역량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역량은 “학생이 간호교육을 통해 졸업시까지 달성해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로 학습성과별로 제시하는 하위역량을 말한다”[1][13]. 8가지 범주 중 4번째 범주로서 “4.1 간호 관련 법, 간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4.2 개인적, 직업적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한다. 4.3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정의를 옹호한다. 4.4 간호정책 활동에 참여한다” 4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4.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로 정의하고 있다[13][Table 1]. 3주기보다는 변화된 4주기에서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개발하고 달성하기 위한 법과 윤리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1] Competencies by program learning outcomes

[표 1] 프로그램 학습성과별 역량

Category	Ability	Program learning outcomes
4. Law and Ethics	4.1 Comply with nursing-related laws and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4. Carry out nursing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ethics
	4.2 Recognize nurses' social responsibility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behavior	
	4.3 Advocate for social justice to address health inequalities.	
	4.4 Participate in nursing policy activities	

2.2 학습성과와 성취수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제시한 학습성과란 “간호교육을 통해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말하는 것이다[1].

교수자는 학습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설계를 하여 학습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12][22-23].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하여 Lee의 연구에서는 각 대학교마다 대학의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간호학과의 학습성과를 정의하고 있다[22]. Lee 연구를 고찰해보면 법적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적용한다는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제시, 타 학문 및 철학과 종교에 기반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되는 학교도 있었다. 이는 간호학문을 다른 학문과 융합하고 이러한 사고에 기반한 법적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22].

Lee 연구에서[22] 성취수준은 학교마다 Level 1~ Level 3까지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예로 제시한 Level를 살펴보면 “Level 1은 지식에 대한 이해, Level 2는 간호실무에 적용, Level 3는 간호실무에 통합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성과에 따른 성취수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Level 2,3에서 학습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Level 2에서는 보건의료법규와 관련된 법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Level 3에서는 판례분석 및 이슈제시와 에세이 또는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성과 달성의 최종여부는 시험과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22]. 또한 간호실무표준과 법적 윤리기준 적용에 관한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2][24].

2.3 간호사 국가시험과 보건의료관계법규 교육

보건의료관련법규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외 2022년 국가시험부터 도입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대부분 졸업 학년의 2시간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에 배정되어, 간호사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암기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22년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분석결과 보건의약관계법규는 과목별 과락자수에서는 다른 전공과목보다도 과락자수가 1순위로 많았다[25]. 국가시험전체 문항 수에서 20문항에 지나지 않지만 과락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간호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지만 관련 법규를 단순히 암기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과목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시험을 위한 암기과목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역량과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며,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암기과목이라는 부담이 될 수 있어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낮아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Table 2] Expected number of questions by area
[표 2] 영역별 예상 질문 수

Category Law	Test
Medical	6
Health and Medical Fundamental	1
Local health	2
National Health Promotion	1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2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Prevention Method	1
Quarantine	1
Emergency Medical Services	1
Blood management	1
Narcotics Control	1
National Health Insurance	2
Act o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for Patients in the Endof Life Process	1
Total	20

2.4 간호교육에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교육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은 건강과 관련된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의료행위를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행위자와 주체자 및 수단을 포함한 법적 업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을 헌법상의 건강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입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26]. 헌법의 기본권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생명권, 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이 있으며, 제36조 제3항에는 보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26]. 이러한 보건의료관련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에 근간함을 볼 수 있다. 2022년부터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입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두고 기본권과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에서 보는 보건의료법학에 대해서 법학의 분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법이라고도 하였다[27]. 보건의료관련법 제정과 내용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에서 간호사 국가시험만을 위한 즉 보건의료관계법규 교육이 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간호사로서 법과 윤리 역량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의학 교육에서는 의사국가고시에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범주에 있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했다[2]. 특히 법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의 확장성은 법을 단순히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비판

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2]. 간호사가 임상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주제가 환자와의 법적 관계와 법체계 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되는 것이 있으나 의사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에서는 시험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시험에서의 법 적용의 사례가 출제되지 어렵고, 다양한 사례들은 현장에 따라 그 상황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어할 수 있다. 의료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비단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의 보조적 업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전문성 확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간호업무 범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28-29]. 이러한 흐름은 간호사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으며 간호상황에서 법적 의료분쟁 발생하고 있다[30].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주의 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28]. 주의의무는 간호사로서 업무를 할 때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을 간과하여 위반할 수 있거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예견된다면 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투약행위에서 확인의무에 대해 확인절차를 갖지 않고 환자에게 사망에 이른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였고 이는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28]. 즉 이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처치를 하지만 간호사로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오책임이 따르며, 점점 이러한 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28]. 이러한 판례를 볼 때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식을 높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사의 직업윤리와 관련성이 높으며 현

실적인 문제를 국가시험에 다루기 어렵더라도 법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성과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핵심 역량이 달성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노력이 필요하다[30].

3. 결론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학습성과 범주에 속한 법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임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의료관계법규가 가지는 교육뿐 만 아니라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묵과할 수는 없다. 만약 간호사 국가고시로서 보건의료법을 바라본다면 단순히 암기 위주의 교육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관계법규가 단순히 보건의료법규시험을 확인한다고 하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하는 4가지 역량은 달성하기 어렵고 향후 간호사의 법과 윤리와 관련된 성과는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의료관계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범주에 속한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직업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해 암기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수법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의료법 개정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소송 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의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수준 높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범위가 아주 넓다[28]. 이것은 국외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전문직 간호사의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28]. 따라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책임과 가치를 높이고 법과 윤리에 따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References

- [1]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Hand book for Universities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2022.
- [2] Moon Mi-Young and Song Hyo-Suk, 'Effects on Health and Medical Related Law Education Stud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8, pp.413-422, 2019.
- [3] Korea Consumer Agency. (2019). Half of the elderly safety accidents occur in the home. Retrieved December 1, 2020, from: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1029197>.
- [4] Court of Korea. (2020). Judicial yearbook. retrieved December 1,2020, from: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gubun=719>.
- [5] Song Sung-Sook, Kim Eun-Joo, 'Analysis of the Leading Cases of Nurses charged with Involuntary Manslaughter', *J Muscle Jt Health*, Vol. 28, No. 1, pp. 30-40, 2021.
- [6] So, H. Y. 'A nurse's legal responsibility in judicial precedents of medical litig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4.
- [7] Lee Yu-ri, Choi Sung-kyoung and Kim In-Sook, Meaning and Future Tasks of Revised Medical Service Act on Nursing Service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25, No.2, pp. 133-152, 2017.
- [8] Beom, G. C, 'A study of a nurse's legal responsibility', *Medical Jurisprudence*, Vol.21, No.2, pp. 285-316, 2014.
- [9] Jnag Mi-Hee, 'A Study on the Nurse's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15, No.2, pp. 195-223, 2014.
- [10] Lim, J. S, A study of a medical doctor and a nurse's penal liability for neg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 of medici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2.
- [11] Kim Han-nah, 'Reflecting the trend of expan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legal nurses'. *Medical Policy Forum*, pp.5-34, 2010.
- [12] Kim, Kon-Hee. 'Consequential Validity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Accreditation o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iwa uni, 2020.
- [1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 Handbook for university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in the first half of 2021.
- [14] Shin Kyung-Rim, Yang Heui-Ahn, Kyung Sook Park, and Yeon Ok-Suh. 'A Study of the Standard Evaluation of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vol. 31, no. 6, pp. 1109-1118, 2001.
- [1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Purpose of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ited 2017 March 16]. Available from: <http://kabone.or.kr/kabon02/index.php>
- [16] McLagan, P. Great ideas revisited: Job competency models. *Training & Development*, vol. 50, no. 1, pp.60-65, 1996.
- [17] Park Sung-mi,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as an element of vocational ability'.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Vol. 30, No. 3, pp.327-351, 2011.
- [18] Jung Myeong-Soon, and Kwon Hye-J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pp. 256-265, 2015.
- [19] Seomun G, Bang K-S, Kim HS, Yoo CS, Kim WK and Park JK. 'The development of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the analysis

- of validity and importance—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7, No.1, pp. 16-28, 2021.
- [20] Han Aekyung, Dong Sook Cho and Jong Soon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1, No.2, pp. 162-173, 2014.
- [21] Kim Kon Hee. ‘Faculty Perceptions of the Improvement and Effort for the Achievement of Quality in Nursing Education through Accreditation i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 13, no. 2, pp. 59-68, 2011.
- [22] Lee Han-joo, ‘Investigation of health and medical laws and subject operation status and Design of course operation plan centered on learning outcomes’ *Presented at the 2022 Autumn Conference, 2022*.
- [23] Kim Sun,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Learning Outcom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June 30, 2012.
- [24] Lee Hiye-Ja, Kim Hyo-Shin, ‘Integration of Program Outcomes and NCS in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3, No. 2, pp. 175-181, 2015.
- [25] Results of the 2020-2021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es
- [26] Bae, Hyun-A, Kim, Hyo-Sin and Kang, Min-Ah, ‘Health and Medical Practice Revisited with a Historical Review of Health Care Legislature and Application to Health Policy’,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no.44, pp. 387-433, 2013.
- [27] Eom Ju-hee, ‘Intersection of Health Law and Constitutional law—Health Law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o.24, pp. 167-203, 2020.
- [28] Kim Han-nah, ‘Reflecting the trend of expan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legal nurses’, *Medical Policy Forum*, vol.8, no.1, pp.127-130, 2010.
- [29] Beom Kyung-Chul,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Nurse’,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vol.15, no.2, pp. 285 - 316, 2014.
- [30] Park Boc-Nam, Gil Hyo-Jung and Ahn Jong-il,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re Competency Diagnosis Tool of Y University’,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8, No.1, pp.29-36, 2020.